

삼전·하이닉스 날자...국민연금 3개월 새 70조원 벌었다

등록 2026.01.12 11:02:48



[서울=뉴스시스] 정병혁 기자 = 코스피가 장중 4600선을 넘어서고 삼성전자가 14만원대를 넘어서 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.

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(4525.48)보다 40.86포인트(0.90%) 상승한 4566.34에,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(955.97)보다 1.77포인트(0.19%) 오른 957.74에 거래를 시작했다.

서울 외환시장에서 원·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증가(1445.5원)보다 3.0원 오른 1448.5원에 출발했다. 삼성전자는 오전 9시 38분 기준 14만1700원에 거래 중이다. SK하이닉스는 장중 76만2000원까지 올랐다. 2026.01.07. jhope@newsis.com

[서울=뉴스시스]이지민 기자 = 반도체 '투톱'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지난해 4분기 급등하면서 국민연금의 주식 평가액도 전 분기 대비 약 70조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.

1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공시 대상 상장사의 주식 평가액은 266조1386억원으로 집계됐다. 이는 지난 7일 기준 국민연금이 5% 이상 대량 지분을 보유해 공시 대상이 된 상장사의 주식 평가액을 집계한 것이다.

직전 분기인 3분기 말 196조4442억원과 비교하면, 69조6944억원 늘어난 수치다. 증가율은 35.48%에 달한다.

한 분기 만에 주식 평가액이 약 70조원 급증한 데는 삼성전자·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들 주가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

풀이된다.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평가액이 각각 26조1882억원, 21조967억원 늘었다.

지난해 4분기 국민연금의 전체 주식 평가액 증加分 중 두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67.85%로 절반이 넘는다. 해당 지분율은 3분기 말과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.

삼성전자는 4분기 국내 기업 중 최초로 영업이익 20조원(잠정치)을 기록하는 등 실적 성장을 이뤘다. 이 기간 주가 상승률은 63.95%에 달한다.

SK하이닉스 주가 역시 4분기 106.11% 상승했다.

이들 기업에 이어 주식 평가액이 많이 증가한 3~5위 종목은 SK스퀘어, 현대차, 삼성에피소홀딩스 등으로 확인됐다.

반면 국민연금이 지분율 5%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중 주식 평가액이 가장 많이 감소한 종목은 7.92%를 보유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나타났다. 이어 삼양식품(2677억원), NAVER(2342억원), 크래프톤(2059억원) 순이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ezmin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